

한라시론



민 무 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매년 2월 11일은 세계여성과학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Women and Girls in Science)이다. 과학 분야 내 성별 고정관념과 불평등을 없애고 과학계 진출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5년 제70회 유엔 총회에서 제정됐다. 해마다 전 세계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안전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행사가 열린다.

여성과학자의 증가는 연구개발성과와 과학기술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효과가 크다. 이에 과학기술 선도국가에서는 다양성·포용성 제

‘세계여성과학인의 날’에 생각하는 히든 피겨스

고를 위한 조사, 관련 지침과 권고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지원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 여성과학자 육성 및 연구·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여성의 창의적 역량을 높이고 과학기술분야 조직 문화 등 생태계변화를 꾀하는 것이 1단계 정책이었다면 다음 단계는 연구개발 모든 과정에서 성(생물학적 성별)과 젠더(사회문화적 성별) 분석을 도입해 편향성을 제거함으로써 모두에게 이로운 과학기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젠더혁신(gender innovation) 정책이라고 일컫는다.

이 정책은 EU 최대 규모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바 지원받는 모든 프로젝트는 계획수립, 개발과정, 결과분석 전 과정에

서 젠더분석을 필수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그 결과 여성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약품의 문제를 발견하는 등 의·생명분야를 넘어 모빌리티, 환경오염, AI, 감염병 등 과학기술 개발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발전은 그동안 여성과학자들의 증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들의 시선은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렌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여성과학자들의 공헌은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다. 대중이 쉽게 떠올리는 여성과학자는 마리 퀴리 정도이다. 과학자(scientist)라는 용어의 탄생도 18세기 여성과학자 메리 소머빌의 물리과학분야 저술이 그 계기가 된 점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2017년 개봉된 ‘히든 피겨스’는 미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공

헌한 세 명의 흑인 여성과학자를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킨 의미 있는 영화이다. 나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기존 연구소와 워싱턴 본부의 명칭을 이들의 이름으로 개칭하고 히든 피겨스 거리도 만들었다. 여성과 흑인이라는 이중차별을 넘어서 미해결의 달 착륙을 성공시키고 평등의 가치를 높인 이들의 업적을 가시화한 것이다.

혁신을 일으킬 히든 피겨스, 어떤 사람들이 더 있는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매해 기획·출간하는 여성과학자 시리즈를 보시라. 자녀들에게도 권하시라. ‘과학하는 여자들’, ‘공학하는 여자들’, ‘수학하는 여자들’ 등 새로운 길을 개척한 국내외 여러 여성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다. 과학계 여성 히든 피겨스가 변화시킬 세상을 기대한다.

사설

4·3 특별법 보완 입법 서둘러야

제주4·3은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컸던 비극적인 사건이다. 4·3은 올해 75주년을 맞이한다. 기나긴 세월 동안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 이제 커커이 쌓여있던 한들은 하나씩 풀려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4·3 군사재판·일반재판 특별재심을 진행해 오고 있다.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한 수형인만 1000여 명에 이른다. 진실규명과 함께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에 큰 진전을 이뤄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희생자 1009 명에게 62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 신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총 6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 해결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

가할 수 있다.

하지만 4·3 특별법 보완은 과제로 남아있다. 4·3 전담 재판부를 이끌어온 장찬수 판사는 7일 기자회견담회에서 특별재심 절차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반재판과 군사재판 구분 없이 직권재심과 청구재심에 대한 관계설정을 위한 조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이 없어 희생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의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모호한 법 규정 보완 필요성을 체득한 것이다.

따라서 희생자와 유족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4·3 특별법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도 당국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 내 노인학대는 어찌하려고...

제주에서 학대를 당하는 노인이 연간 130여 명에서 1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대 피해 노인은 44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34명, 2021년 148명, 2020년 159명 등이다. 배우자와 아들에 의한 학대가 각각 139건, 16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학대 장소별로 보면 ‘가정 내’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 새 가정 내 412건, 시설 21건, 공공장소 4건 등이다. 노인 학대가 발생한 시설은 총 13개소(21건)였으며, 이중 행정처분까지 받은 시설은 6개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 모니터링,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은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등 노인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문제는 시설에서의 학대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데 있다. 집안(가족)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그릇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학대 문제는 가정 탓과 더불어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엔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관심 등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시설과 가정 등에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편집국 25시

다시 개천에서 용이 나길 바라며



김 채 현
편집부 기자
hakch@ihalla.com

“개천에서 용 난다”. 지저분한 개천에서 신성한 동물인 용이 나왔다는 말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다.

어렸을 때는 주변에서 자주 듣고 했던 말이었지만, 현대사회를 보고 있자면 흔히 사용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다.

요즘에는 이 말 대신 ‘갑질’ ‘금수저’ 등의 언어가 많이 사용된다. 즉 태어날 때 배경이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경제 기사를 편집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다. ‘고물가’ ‘고금리’ ‘대출’ 등의 단어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침체된 경기 속 물가는 상승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다. 실상가상 전기 가스요금도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반면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상승한 금리에 은행으로 달려가 저축하기 바쁘다. 부를 가진 자들은 더욱 부를 쌓고, 없는 자들은 더욱 없어지는 사회, 계층 간의 이등이 어려워진 사회. 이러한 사회배경 속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의 사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계급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지원내실화 등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널리 사용될 수 있길 바란다.

뉴스-in

제주시 청년지원팀 소통 채널 차별화될까

“실질적 정책 수요 파악을”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에 청년지원팀이 만들어진 가운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소통 창구가 가동될지 관심.

청년지원팀은 청년 인재 육성과 역량 개발, 교류, 일자리 창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관련 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제주청년원탁회의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제주시 거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참여기구 구성을 고민 중.

이와 관련 강병삼 제주시장은 8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신설된 청년지원부서에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청년협의체 등의 청년 소통 채널 구축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 진선희기자

노인·장애인 안전교육 확대

○...서귀포시가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노인·장애인층 교육인원 비율을 대폭 확대할 방침.

시는 생애주기별 4개 분야(영유아·청소년·성년·노년기)와 취약계층별 4개 분야(장애인·다문화가정·사회복지시설 이용자·어업인) 등 8개 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맞춤교육을 실시할 예정.

시 관계자는 “올해 교육 인원은 7500명으로 오는 3월부터 교육 예정”이라며 “지난해 영유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데 이어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인·장애인층 교육 인원 비율을 20%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 백금탁기자

부 고

고형덕 (NHN한국사이버결제 (주)) 아버지 제주고공 한근 (前 제주중앙여자중학교 행정실장·향년 80세)께서 서기 2023년 2월 7일 23시 29분경경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3년 2월 9일(목요일)
▶ 발인일시: 2023년 2월 10일(금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 장 지: 양지공원→평대리 가족공동묘지

부 인 부 성 여
아 들 고 형 덕 며느리 양혜정
고대홍 임세영
고준혁 홍인선
딸 고수덕 사위 양기호

※ 연락처 : 고형덕 010-9898-7463
고대홍 010-2689-7463
고준혁 010-5035-7463
양기호 010-2689-170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진주강씨 맹열(향년 97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2월 9일

아들 김순필
며느리 조형숙

자본감소 및 주식소각 공고

본 회사는 2023년 2월 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50,000,000원을 금 4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주당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1,000주를 회사가 매수하여 임의 소각하고 발행주식 총수 5,000주를 4,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로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이의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이 기간까지 이의가 없으면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23년 2월 9일

주식회사 신원엔지니어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신로 22-7, 201호
대표이사 김성해

차고지/주차장

市の 자기차고지갯기사업
市 지원 90%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 자기차고지갯기사업 *
No.1 시공업체

편리한 생활 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수리/하차보수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제주도백]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3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 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 리 탄 우 리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임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사흘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남)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함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